

꿈같던 피서 즐기며 ‘행복 하루’ 장애인들 “늘 오늘만 같았으면”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 장애인들과 가족 위해 특별 개장 안전요원 보살핌 속 물놀이 만끽

“장애인에게 피서는 남의 말이지만, 오늘 하루 마음 놓고 피서를 즐길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해요” 7일 오전 11시께 광주시가 장애인들을 위해 특별 개장한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에는 광주지역 장애인들로 가득했다.

폭염에 피서를 즐기기 힘든 장애인들은 여름철 단 한번 열리는 특별 개장을 맞이해 래쉬가드(수영복)를 입고 들뜬 모습으로 물장구를 치며 여름을 즐겼다.

광주시는 푸른도시사업소 주관으로 7일 하루동안(오전 10시~오후 5시)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을 장애인을 위해 개장했다.

당초 이날은 정기휴일이지만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하루를 개방해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물놀이장엔 문을 열기 전부터 시민의 숲을 찾은 장애인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가족 단위로 부모님 손을 잡고 온 장애인들도 있었지만 주간보호센터와 자립지원센터 등에서 찾아온 이들도 있었다.

이날 물놀이장을 찾은 장애인의 대다수는 발달장애인이었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들은 휠체어 등의 장비를 사용해야 하지만 보조장비를 착용하고 물놀이를 즐기기에 어렵다는 점에서다.

부모의 손을 잡고 물놀이장을 찾은 한 장애인 어린이는 발목을 조금 넘는 얇은 수심의 물에 발을 조심스럽게 담겼다.

아이의 부모는 장애아동이 여름철에 물놀이를 쉽게 즐길 적이 없어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안쓰러워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도 금세 주저앉아 물장구를 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곁에서 아이를 맴돌며 주시하던 부모도 안전요원의 동행 하에 이뤄지는 물놀이에 한결 마음을 놓았다.

광주시 북구에서 온 최혜윤(여·36)씨는 “아이가 셋인데 한명이 다운중후군이라서 여행을 가도 매년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7일 오후 광주시 북구 오룡동의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에서 물놀이를 하며 무더위를 피하고 있다.

마음 놓고 물놀이 해본 적이 없다”며 “광주에서 특별 개장한 물놀이장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올 여름 물놀이에 대한 미련을 모두 떨칠 수 있게 됐다”고 웃어보였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온 이들 중에는 성인 발달장애인들도 있었다. 이들은 놀이기구에 설치된 물바가지에서 떨어지는 물을 기다렸다가 맞으며 즐거워했다.

햇볕에 타지 않게 선 쪼파와 챙이 넓은 모자를 쓴 장애인들은 격한 물놀이에 모자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서로에게 물을 뿌려댔다. 물이 쉬지 않고 떨어지는 버섯 모양의 놀이기구 안에 들어가서 일부러 물을 맞기도 하고 서로를 물에 빼뜨리려 안간힘을 쓰는 등 비장애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아름주주간보호센터에서 물놀이장을 찾은 지적장애인 이효선(여·40)씨는 “여름에 물놀이를 해본 기억이 없는데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다”며 “물놀이가 너무 재밌고 시원하다. 매일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물놀이장은 50분 운영 후 10분 휴식을 갖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운영 시간 동안에는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최신 가요가 흘러나왔고 한 장애인은 신이 나서 춤을 추기도 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가진 학부모들은 그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바깥 활동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이날 만든 안전요원까지 배치된 물놀이장을 이용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즐겨주는 한때를 보냈다.

지적장애인 딸을 둔 이영훈(48)씨는 “장애가 있어 사람들과 어울리기 쉽지 않은 딸에게 여름철 즐겁고 소중한 기억을 안겨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특별 개장이 앞으로도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소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별 개장한 물놀이장을 찾았다는 백순영 다중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은 “아이들의 돌발행동이나 비장애인들의 시선 등이 걱정돼 장애인들은 여름철 물놀이를 떠나기 쉽지 않다”며 “이렇게 장애인들로만 이뤄진 공간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아이들은 물론 보호자들도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본의 핵 오염수에서 걸러지지 않은 물질들은 몸에 한번 흡수되면 50년이 지나도 빠져나가지 않고 백혈병이나 골수암을 유발한다”며 “전남의 수산물 생산량은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해남 경제에서 수산업은 지역의 중추산업으로 해양투기로 인한 피해는 막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후쿠시마 해양투기 반대 목소리를 내고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

구청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북구지회’(지회)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우리나라 외식업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수호에 반하는 처사”라며 “우리나라 외식업과 어민을 대변해야 할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을 오히려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에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이어진다. 광주에서는 북구 지역 학부모 모임이 8일 오전 북구청 광장 앞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북구지역 학부모 모임 기자회견’을 연다.

학부모들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학교 급식이 위협해진다는 뜻을 담은 퍼포먼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전남에서도 8일 오후 전국어민회총연합회가 영광군 영광읍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촛불시가행진’을 펼친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함평 알루미늄 공장 화재 진화 언제쯤

금속화재 물 사용 안돼 어려움 질식소화 방식 사흘째 진화 중 3년전 곡성선 23일만에 진화

함평 알루미늄 제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3일째 꺼지지 않고 있다.

다행히 주불은 잡았지만 알루미늄에 물이 닿으면 폭발을 한다는 점에서 물로 소화작업을 할 수 없다. 이 탓에 불씨가 자연스럽게 꺼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완전 진화까지는 앞으로도 꽤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남소방본부는 지난 5일 새벽 4시 50분께 함평군 대동면의 한 알루미늄 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일째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진화율은 20%정도라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이 공장은 알루미늄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제련, 정련, 합금 등의 작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불은 공장 앞 야적장에 적치해둔 알루미늄이 섞인 금속 분말에서 발생했다.

지난 2020년 곡성군 석곡면 농공산업단지 내 알루미늄 분말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과 유사한 상황이다. 당시에도 집중호우로 공기 중 습기가 많아 알루미늄 분말에 불이 붙어 200t의 알루미늄 분말을 모두 태우고 23일만에 진화됐다.

알루미늄 화재는 물과 접촉하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해 물로는 진압할 수 없으며 폭발 위험성도 매우 높다.

이 공장 야적장에는 총 1200t의 알루미늄 분말이 있지만 절반가량인 600여t의 분말에 불이 붙었다. 나머지 600t의 분말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소방당국은 모래로 화재 차단벽을 세웠다.

소방당국은 물을 사용할 수 없어 단열용 인공 골재인 팽창질석과 마른 모래를 살포해 방어를 만들고 공기를 차단하는 등 질식소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진화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염과 높은 습도 탓에 진압이 쉽지 않은 것이다. 소방당국은 지난 5일 ‘화재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지역 내 소방인력을 모두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일 최고기온 36도에 달하는 폭염으로 낮 시간동안 20분 이상 작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난항을 겪었다.

결국 소방당국은 같은 날 낮 12시 40분께 인근 지역 소방인력까지 동원하는 ‘화재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무안, 나주, 영광, 장성 등에서 소방대원 248명, 장비 43대를 동원한 끝에 이날 오후 6시께 겨우 화재 추가 확산을 저지했다.

소방당국은 방화면역을 착용한 채 금속 분말을 조금씩 긁어내 식히는 방식으로 진화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광주·전남 곳곳 ‘오염수 방류 반대’ 공동행동

해남·영광·광주 북구 등서 “방류 저지” 지역민 목소리 높아

광주·전남 곳곳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치는 지역민들의 공동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폐기 저지 해남공동행동’은 7일 오후 해남읍 해남군청 앞 잔디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해남 군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일본의 핵 오염수에서 걸러지지 않은 물질들은 몸에 한번 흡수되면 50년이 지나도 빠져나가지 않고 백혈병이나 골수암을 유발한다”며 “전남의 수산물 생산량은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해남 경제에서 수산업은 지역의 중추산업으로 해양투기로 인한 피해는 막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후쿠시마 해양투기 반대 목소리를 내고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

구청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북구지회’(지회)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우리나라 외식업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수호에 반하는 처사”라며 “우리나라 외식업과 어민을 대변해야 할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을 오히려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에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이어진다. 광주에서는 북구 지역 학부모 모임이 8일 오전 북구청 광장 앞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북구지역 학부모 모임 기자회견’을 연다.

학부모들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학교 급식이 위협해진다는 뜻을 담은 퍼포먼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전남에서도 8일 오후 전국어민회총연합회가 영광군 영광읍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촛불시가행진’을 펼친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열대야 속 광주 일부 정전...1200세대 불편

풍암·송하동 전력공급 2시간 중단

광주에 열대야 현상이 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시 서구·남구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해 1200여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 서구청과 한전 등에 따르면 7일 새벽 4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남구 송하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서구 풍암동의 아파트 1200여세대에 전력 공급이 끊겼다.

한전은 정전 1시간 20여분만인 새벽 5시 40분께

전력을 복구했으나, 한 아파트 단지 391세대는 자체 전력저장 설비의 설정값을 재설정하느라 2시간여 가까이 전력 공급이 늦어졌다.

한전은 이곳 일대의 한 전선주에 설치된 ‘피뢰기’(낙뢰 피해 차단 장치)가 고장나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장난 피뢰기는 지난 2019년 설치된 것으로, 한전은 장비 결함 여부 등을 정밀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